

KIA “5위 반란” vs 넥센 “첫 판 제압”



오늘 고척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4위 넥센 1무만 거둬도 준PO행

대전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는 팀은 넥센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 가운데 어떤 팀이 될까.

정규시즌 4위 넥센과 5위 KIA는 16일 넥센의 홈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에서 올해 포스트시즌의 막을 올리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른다.

이날 넥센이 승리하거나 비기면 바로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에 진출해 정규리그 3위 한화 이글스와 겨룬다. 반면 KIA가 이기면 17일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치러 한화의 상대를 가

린다.

정규시즌 종료를 1경기 남겨두고 간신히 5위를 확정된 KIA는 사상 첫 '5위 반란'을 꿈꾼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와일드카드 결정전 모두 4위 팀이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그나마 2016년 정규시즌 5위였던 KIA가 LG 트윈스를 상대로 와일드카드 1차전을 잡은 게 유일한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이 열린 사례다.

2년 만에 포스트시즌을 맞는 넥센은

외국인 투수 제이크 브리검, 지난해 통합 챔피언 KIA는 정규시즌 막판 오른 쪽 옆구리 근육을 다쳤던 왼손 에이스 양현종을 16일 경기 선발 투수로 내보낸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포함, 3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KIA는 주축 선수들의 큰 경기 경험이 강점이다.

로저 버나디나-나지완이 버티는 테이블세터부터 최형우-안치홍-김주찬으로 이어지는 중심타선도 넥센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하다.

KIA 역시 넥센과 마찬가지로 불펜이 약점이다. 지난해 주전 마무리 김세현이 부진에 빠졌고, 윤석민 역시 예전 기량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2018 KBO 리그 정규시즌 4위로 2년

만에 가을야구에 돌아온 넥센 히어로즈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낯설지 않다. 10개 구단 체제가 출범한 2015년에도 정규시즌 4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올랐던 넥센은 당시 5위 SK 와이번스와 연장 11회 혈전을 벌인 끝에 5-4로 역전 끝내기 승리를 따냈다.

넥센은 2경기 중 한 판만 따내면 돼 유리한 상황이지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선발 카드가 없다는 게 불안 요소다.

넥센은 2015년 이후 치른 포스트시즌 9경기에서 단 3경기에서만 승리했다. 이 3경기 모두 왼손 에이스 앤디 밴 헤켄이 선발로 등판한 경기였다.

올해 리그 최다 이닝(199이닝)을 투구한 제이크 브리검(11승 7패 평균자책점 3.84), 시즌 중반 넥센 유니폼을

입은 에릭 해커(5승 3패 평균자책점 5.20)는 켈리타스타(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가 현실적인 기대치인 선수다. 데뷔 첫 규정이닝을 달성한 한현희(11승 7패 평균자책점 4.79)는 큰 경기 경험이 적다.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최원태(13승 7패 평균자책점 3.95)의 공백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리그 불펜세이브 최다(23회)인 불펜도 불안하다.

대신 타선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4번 타자 박병호가 포진한 가운데 이정후-서건창 테이블세터는 어느 팀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시즌 막판 페이스가 떨어진 김하성과 김민성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쉽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골든스테이트 3연패 도전 NBA 17일 개막

미국프로농구(NBA) 2018-2019 시즌이 17일(한국시간) 개막한다.

이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오클라호마시티 선더, 보스턴 셀틱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대결로 막을 올리는 NBA 시즌은 2019년 4월까지 팀당 82경기씩 치르는 정규리그가 진행되고 이후 6월까지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이 펼쳐지는 8개월 대장정이다.

올해는 이런 판도에 균열이 예상된다.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골든스테이트는 여전히 우승권 전력으로 분류되지만 '킹' 르브론 제임스가 이끌던 클리블랜드는 제임스가 LA 레이커스로 떠나면서 전력이 약해졌다.

이번 시즌 골든스테이트의 '대항마'로는 서부 콘퍼런스의 휴스턴 로키츠, 동부 콘퍼런스의 보스턴 셀틱스 등이 거론된다.

제임스 외에 마이클 비즐 등을 영입한 LA 레이커스는 6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한다.

또 팜픽스 그리즐리스의 일본 선수 와타나베 유타의 활약 여부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고척 스카이돔 2층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미디어데이에 참석자들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넥센 히어로즈 이정후, 박병호, 장정석 감독, KIA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 안치홍, 김윤동. /연합뉴스

18연승 조코비치 세계 1위 탈환 '눈앞'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최근 1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세계 랭킹 1위 탈환도 눈앞에 뒀다.

조코비치는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톨렉스 상하이 마스터스(총상금 708만 6천700 달러) 대회 단식 결승에서 보르나 초리치(13위·크로아티아)를 2-0(6-3 6-4)으로 제압했다.

상하이 대회 우승 상금 136만 560달러(약 15억 4,000만원)를 받은 조코비치는 세계 랭킹에서도 지난주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랭킹 포인트 7,445점이 된 조코비치는 세계 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의 7,660점을 바짝 뒤쫓았다.

이 대회에서 2012년, 2013년, 2015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정상에 오른 조코비치는 2년 만에 세계 1위 탈환에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태 감독 “한 경기로 끝내지 않겠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미디어데이에 필승 출사표

김기태 KIA 타이거즈 감독은 “한 경기로 끝내지 않겠다”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출사표를 밝혔다.

넥센과 KIA가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미디어데이에 필승 의지를 담은 출사표를 냈다.

2년 만에 포스트시즌을 맞는 넥센은

외국인 투수 제이크 브리검, 지난해 통합 챔피언 KIA는 정규시즌 막판 오른 쪽 옆구리 근육을 다쳤던 왼손 에이스 양현종을 16일 경기 선발 투수로 내보낸다.

KIA와 함께 3년 연속 포스트시즌을 경험하는 김기태 감독은 “팬들에게 몇 경기라도 더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목표다”라면서 “내일 이기겠다. 재밌는

경기와 함께 KIA가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석 넥센 감독은 “올 시즌을 되돌려보면 많은 일이 있었다. 그때마다 코치진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베테랑 이택근을 비롯해 고준환 선수들이 어린 선수 위주의 팀을 잘 이끌어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어렵게 온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리만큼 양보할 생각은 당연히

없다. 오히려 단판 승부이니만큼 총력전을 예고했다.

장 감독은 “우리가 첫 경기를 잡으면 이번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끝이니 에릭 해커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투수들도 경기에 따라 투입할 수 있도록 1차전에 대기할 것이다”라고 마운드 운용 계획을 설명했다.

김 감독도 “모든 투수가 불펜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숨소리를 냈다.

KIA는 2016년 정규시즌 5위를 차지한 뒤 4위 LG 트윈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첫 경기를 이겼으나 두 번째 경기에서 저준PO 진출에 실패한 기억이 있다.

김 감독은 “그땐 우리가 경험이 없어 부담을 가졌다”면서 “지금은 우리 선수들이 큰 경기를 많이 해봐 그때보다 는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미디어데이에 양 팀 선수를 대표해 넥센 박병호와 이정후, KIA 안치홍과 김윤동이 참석했다.

KIA의 안치홍은 “작년 좋은 성적을 냈지만, 올해 힘있게 올라온 만큼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

김윤동 역시 “정규시즌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지난 것은 지난 거다”라며 정규시즌과는 다를 KIA의 모습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육상 기대주 모일환, 200m 21초 개인 신기록

역도 신비-신록 6관왕·사격 고은석-고은 메달 광주시체육회 궁도팀 단체전 금 대회 2연패



광주·전남 체육계의 차세대 유망주들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다.

육상 기대주 모일환과 역도의 신비-신록, 사격 고은석-고은 쌍둥이 남매가 개인 신기록 등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육상 기대주 모일환(조선대 1년)은 15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육상 남자 대학부 200m에 출전해 21초를 기록하며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모일환은 앞서 14일 자신의 주종목인 4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제고 2학년 때부터 400m에서 두각을 보이던 줄곧 금메달을 따온 모일환은 200m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뽐

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모일환은 특히 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의 밀착 지원을 받으며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다.

광주시체육회 남자 궁도팀은 15일 남원 관덕정에서 열린 일반부 결승에서 109중을 쏘며 2위 대전시체육회를 3중 따돌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개인전에 출전한 홍영은은 23중을 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카누 김규명(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이번 대회 2관왕과 체전 2연패를 달성했다. 김규명은 남자일반부 C1-200m에서 라이벌 최지성(전남도청)을 제치고 40초30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땀다. 김규명은 13일 C1-1000m에도 출전해 4분21초 967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역도형제 신비(왼쪽)와 신록(오른쪽)은 15일 진안문체체육회관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 역도 남자고등부 69kg급과 56kg급 인상, 용상, 합계에서 각각 우승했다.

“쌍둥이 사격남매” 고은석(국군체육부대)은 사격 남자 일반부 공기권총 금메달을 고은(기업은행)은 여자 일반부 20m권총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안게임 탈락의 아쉬움을 달랠다.

이번 대회 메달 획득을 기점으로 이들 남매의 국가대표 발탁과 아시안게임, 올림픽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역도형제 신비(고흥고 3년)-신록(고흥고 1년)은 전국체전에서 나란히

3관왕에 오르며 최강 실력을 뽐냈다.

신록은 15일 진안문체체육회관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 역도 남자고등부 56kg급 인상(108kg), 용상(144kg), 합계(252kg)에서 우승했다. 용상에서는 2007년 노국기가 전국체전에서 세운 한국 학생기록(143kg)을 1kg 넘어선 신기록을 작성했다.

남자고등부 69kg급에 나선 형 신비도 인상 133kg, 용상 172kg, 합계 305kg으로 3관왕에 올랐다. 신비의 용상 기록은 2013년 이인우가 작성한 171kg보다 1kg 무거운 한국 학생신기록이다.

신비는 고교 1학년이던 2016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개·동메달 1개, 2017년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 2개·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신비는 첫 전국체전에 나선 동생과 함께 올해 전국체전에서 6개의 금메달을 쓸어들리며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신비-신록 형제는 “형제가 모두 3관왕을 획득해 더없이 기쁘다”며 “부상 없이 운동에 전념해 ‘아시안게임·올림픽 형제 금메달 획득’ 이정표를 작성해 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15일 오후 5시 현재 광주는 금 24개, 은 23개, 동 38개, 전남은 금 33, 은 24, 동 45개를 기록했다. /황애란 기자

육상 단거리 간판 김국영 전국체전 레이스 마감



한국 남자 육상 단거리 간판스타 김국영(27·광주시청)이 종아리 부상으로 제99회 전국체전 레이스를 포기했다.

김국영은 15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200m 결승전에서 스타트 직후 경기를 포기했다. 200m 금메달은 김국영의 ‘동갑내기 라이벌’ 박태건(강원도청·20초 66)에게 돌아갔다.

김국영이 200m를 포기한 이유는 종아리 근육 부상 때문이다. 김국영은 200m 예선을 뛰고 나서 오른쪽 종아리 근육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코칭스태프와 논의한 결과 큰 부상을 막는 차원에서 200m 결승은 출발선에만 서고 경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부상으로 김국영은 남은 400m 계주와 1,600m 계주 2종목에는 나서지 못하게 돼 올해 전국체전을 아쉬움 속에 마감하고 말았다.

김국영은 광주로 이동해 팀의 지병병원에서 다친 부위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